Insure OUR FUTURE

기후 실패의 50년

스코어카드 2023: 보험사, 화석연료, 기후 위기

Kim Stanley Robinson 서문

November 2023

공동 발간

Insure Our Future 캠페인은 지구 온난화 1.5 ℃ 제한 목표를 위해 보험사를 대상으로 석탄, 석유 및 가스 보장을 중단하길 촉구한다. 캠페인 참여 단체 및 스코어카드 공동 발간 기관은 다음과 같다:

Campax (Switzerland), Coal Action Network (United Kingdom), Connecticut Citizen Action Group (USA), Ekō (international), Fundacja “Rozwój TAK - Odkrywki NIE” (Poland), Greenpeace (international), Investors For Paris Compliance (Canada), Instituto Internacional de Derecho y Medio Ambiente (IIDMA, Spain), Japan Center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Society (JACSES, Japan), Korea Sustainability Investing Forum (KoSIF, Korea), Mazaska Talks (USA), Mothers Rise Up (United Kingdom), Public Citizen (USA), Reclaim Finance (international), ReCommon (Italy), Re-set (Czech Republic), Solutions For Our Climate (Korea), Sierra Club (USA), The Sunrise Project (international), Urgewald (Germany), Waterkeeper Alliance (international).

보고서 소개

스코어카드는 IOF 캠페인에서 발간하는 보험사, 화석연료 및 기후 사태에 관한 7번째 연례 보고서이다. 스코어카드는 재앙적인 기후 사태에 대한 전 세계 보험 업계의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본 보고서는 30개의 주요 원수보험사 및 재보험사를 대상으로 석탄, 석유 및 가스에 대한 보험 및 투자에 대한 정책과 사례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겼다. 보험사 정책의 현황과 허점을 공개하고, 선두주자와 후발주자를 분석하며, 보험사에 주어지는 도전과 기회를 파악한다.

연구
Ariel Le Bourdonnec, *Reclaim Finance*
Rachel Mander, *The Sunrise Project*
Insuramore

저자
Peter Bosshard, *The Sunrise Project*

편집자
Conor Quinn and David Mason,
Greenhouse Communications

디자인
Heather Knight & Simon Arnoldi

인쇄
The Print & Copy Shop, Sheffield

포토크레딧
Greenpeace, Shutterstock, Adobe Stock

통화
특정 통화를 제외하고 본 보고서에서의 $ 는 미국 달러를 의미함.

2023년 11월

서문

킴 스탠리 로빈슨 Kim Stanley Robinson 작성

킴 스탠리 로빈슨 Kim Stanley Robinson은 자연 생태 지속 가능성과 지구 온난화의 재앙적인 영향을 탐구하는 과학소설로 많은 상을 수상했다. 그의 최근 저서로는 '미래를 위한 장관The Ministry for the Future' 이 있다.

보험은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망이다.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얻었을 때, 보험사에서 이를 보상해줌으로써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다.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업은 아마 실패를 겪고 사라질 것이다.

재보험사는 보험사에 다시 보상을 지급하며, 이는 최종 금융 안정망으로 여겨진다. 때로 보험은 이보다 더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 금융 위기가 닥쳐왔을 때 정부의 기업회생과 같은 방법은 정치적이고 법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금융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급격히 빨라진 속도로 찾아오고 있으며, 화석연료의 연소에 기인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축적은 지구 생태계의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인류에게 가능한 빨리 광범위한 탄소 중립을 요구한다. 올해 여름은 관측 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을 기록했지만, 이는 다가올 여름에 비해 온도가 가장 낮았던 여름이 될 수도 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치명적일 것이며, 금전적인 손실 또한 예상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어떤 기업도 이러한 손실에 대한 보상 수준을 맞출 수 있는 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보험사업은 실패를 겪을 것이다. 동일한 이유로 재보험사도 실패를 겪을 것이다. 그 순간 금융 시장은 혼돈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순간 사회적, 물리적 재난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향하고 있는 경로는 명백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상과학 소설은 필요하지 않다. 기후위기 위험은 이제 일반적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 자연을 오염시키는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보험을 여전히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 생산이 우리의 문명을 파괴할 것이 명백함에도 몇몇 정부는 화석연료 생산 증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파괴적인 선택은 높은 교육수준과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고 있다. 그들이 아직 문제의 본질을 꿰뚫지 못한 것은, 아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실물과 실체가 아닌 숫자를 통해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지금 여기, 실물과 실체를 기반으로 비용 및 혜택, 이익과 손실로 표현되는 새로운 측정 및 평가 기준과 모델이 있다. 이 평가 모델을 통한 이해를 기반으로 새로운 생물학·물리학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바로, 기업의 운영방식과 결정 방식이다.

본 보고서는 빠르게 변화되는 새로운 모델과 행동 양식의 일부이다.

이 생물학·물리학적 모델의 핵심은 우리가 생물권의 “안전한 운영 경계” 안에 살아가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 지구적인 경계로, 많은 영향력과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또한 우리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물학·물리학적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인류 문명은 붕괴되고 다음 세대의 미래는 파괴될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다양한 기후 변화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생물학적 그리고 강제적인 재난을 겪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지구적인 경계와 지속가능성 의무를 포함한 이 모델은 전세계로 퍼져나갔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다. 현재 우리는 과학, 정부, 학계, 경제에 있어 역사적인 전환점에 있다.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현재 많은 이들은 동참에 앞서 누가 먼저 변화를 주도할 지 지켜보고 있다. 우리 모두 행동해야 함을 알고 있다. 하지만, 누가 먼저 행동할 것인가? 바로 보험이다.

리스크를 계산하고, 높은 리스크를 막기 위해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그들이 할 일이다.

이제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장을 중단해야 한다. 이는 법적으로도 가능하며,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가능하지만, 이보다 도덕적이고 물리적인 책임이 더 크다. 다른 이들과 같이 생존을 위해 지속가능 의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정보와 모델, 그리고 새롭게 직면하는 현실을 통해 행동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세계로의 패러다임 변화의 일부를 보여준다. 본 보고서를 통해 의미를 찾고, 행동하길 바란다.

요약

“Even 1.5°C of global warming is extremely risky, with the chance of triggering multiple climate tipping points ... 1.5°C should be viewed similar to a ruin scenario for society – a level we must not exceed.”

“1.5°C의 지구 온난화 마저 여러 기후 티핑 포인트를 촉발할 수 있다. 1.5°C는 사회의 파멸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여겨져야 하며,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다.”

Report by the Institute and Faculty of Actuaries & Climate Crisis Advisory Group, November 2022

(영국 보험계리사 협회 및 기후 위기 자문 보고서, 2022년 11월) .

2023년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으로 예상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38억 명 이상이 6월과 8월 사이에 지속적으로 폭염을 경험했으며, 이는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가 원인일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폭염을 겪은 이들 대부분은 기후 변화에 기여하지 않은 아프리카, 남아시아, 중남미 지역에 살고 있다.[1]

38

억 명 이상이 6월과 8월 사이 계속되는 폭염을 경험했다

기후 과학자들은 2021년부터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즉각 중단하고 석유 석탄 가스 생산이 단계적으로 빠르게 축소되어야 기후 붕괴를 피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제6차 평가 보고서에서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감축되지 않은 화석연료를 모두 단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2023년 6월 "모든 금융 기관은 석탄과 관련된 대출, 인수,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새로운 유전 및 가스전 탐사, 석유 및 가스 매장량 확대에 대한 재원조달 및 투자를 중단하고 대신 개발도상국의 전환을 위해 투자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2]

글로벌 리더들과 과학자들의 경고에 응해 재생 에너지 발전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2년 화석연료 소비는 계속해서 증가했으며, 에너지 부문의 CO2 배출량은 393억 톤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3]

2021년 글래스고Glasgow에서 열린 COP26 기후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중의 요구에 의해 전 세계 500개 이상의 금융 기관이 기후 행동을 약속하고 탄소중립 동맹에 가입했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31곳의 보험사가 새로 설립한 탄소중립 보험 연합NZIA, Net Zero Insurance Alliance에 가입했다.

금융 기관들은 2년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올해부터 탄소중립 약속을 이행해야 했다. 탄소중립 동맹 소속 모든 회원사는 6월에 순배출량 제로 달성을 목표로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을 문서화한 전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며, NZIA 회원사는 7월에 보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발표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NZIA 회원 대부분은 미국의 화석연료 로비가 행사하는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여 올해 NZIA를 탈퇴했다. 탈퇴하는 멤버들은 기후 서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보험사 중 NZIA 가입 시 서약했던 2030년 보험 절대 배출량을 34% 이상 감축 목표를 설정한 보험사는 아직 없다.

기후 위기 시급하나, 화석연료 제한 더뎌

지난 한 해 동안 보험사들은 화석연료 보험 인수 제한을 지속적으로 도입했으며, 석탄 회사들은 신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사업에도 보험에 가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4] 이는 보험 업계가 화석연료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화석연료 대체 전환은 기후 위기의 시급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보험사는 석유 및 가스 인프라 확장을 계속 보장하고 있다.

45

개 보험사가 탈석탄 정책 수립

18

개 보험사가 비전통적 석유 및 가스에 제한 정책 수립

2022년 11월 마지막 스코어카드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탈석탄 정책을 시행하는 보험사의 수는 41개에서 45개로, 기존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제한을 시행하는 보험사는 14개에서 18개로 증가했다. 상업용 손해보험 시장에서 41.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원수보험사Primary insurer는 현재 석탄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작년 39.8%에서 증가), 전통적 conventional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는 시장의 19.6%를 차지하고 있다(15.4%에서 증가). 재보험 업계에서 규제 대상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석탄의 경우 62.7%(2022년 58.2%에서 증가), 석유 및 가스의 경우 46.7%(43.4%에서 증가)이다.

일부 보험사는 업스트림up-stream 석유 및 가스뿐만 아니라 미드스트림mid-steam 및 다운스트림down-stream 석유 프로젝트에도 제한을 적용하고 있지만, 그 외의 보험사들 대부분이 극히 제한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보험사 MS&AD는 더 이상 석탄 회사의 석유 및 가스 추출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보험을 제공하지 않지만 석유 및 가스 회사에 대한 보험은 계속 제공할 것이다.

취리히Zurich는 업계의 위선적인 기후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스위스 보험사는 2015년 파리협정의 목표에 맞춰 비즈니스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으며, 2021년에는 NZIA의 창립 회원사 중 하나가 되었다. 취리히는 세계에서 6번째로 큰 화석연료 보험사이며, 로이즈 오브 런던Lloyd's of London과 함께 새로운 석유 및 가스 추출 프로젝트를 계속 인수하는 유일한 유럽 주요 보험사이다. 이 회사는 석유 및 가스 제한에 대한 대안으로 탄소중립 목표와 전환 계획을 계속해서 지지해 왔다. 하지만 취리히는 지난 4월 다른 보험사와 함께 NZIA를 최초로 탈퇴했으며, 배출량 감축 목표를 발표하지 않았고, 첫 번째 전환 계획을 2024년으로 연기했다.

NZIA 탈퇴 후 취리히 CEO는 "모든 기업은 자신이 믿는 바를 대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5] 스위스 보험사, 그리고 더 넓게는 석유 및 가스 확장과 관련한 보험 업계의 행적은 기후 행동에 대한 보험사의 입장을 시사하는 증거이다.

그림 1: 본 보고서 분석 대상 보험사

AIG	Allianz	AVIVA	AXA	AXIS	Berkshire Hathaway
Berkley	CHUBB	everest	GENERALI	hannover re	HDI
Liberty Mutual	LLOYD'S	MAPFRE	MS&AD INSURANCE GROUP	Munich RE	PICC
中国平安 PING AN	QBE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SCOR	SINO SURE	SOMPO
STARR INSURANCE COMPANIES	Swiss Re	THE HARTFORD	TOKIO MARINE INSURANCE GROUP	TRAVELERS	ZURICH

선발주자와 후발주자

IOF 스코어카드Scorecard는 매년 30개 보험(및 재보험) 회사를 대상으로 화석연료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긴다. 점수는 'Insure Our Future' 캠페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한 보험사의 응답 혹은 무응답자의 경우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일부 보험사가 화석연료에 대한 제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파리 1.5°C 목표와 일치하는 것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현재의 기후 사태에 대한 업계의 대응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의해 올해 스코어카드의 상위 3개 자리는 처음으로 비워둔 상태이다.

0

1.5℃ 목표 수립 보험사 개수

알리안츠Allianz는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화석연료 인수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독일 보험사는 제너럴리Generali, 아비바Aviva, 스위스 리Swiss Re, 악사AXA, 하노버 리Hannover Re, 악시스 캐피탈AXIS Capital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석탄 폐지 정책에서는 알리안츠Allianz, 악사AXA, 스위스 리Swiss Re, 제너럴 리Generali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석유 및 가스 제한 정책에서는 아비바Aviva, 제너럴리Generali, 알리안츠Allianz, 하노버 리Hannover Re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보고서의 연구에 따르면 로이드 시장Lloyd's market의 보험사들은 총체적으로 세계 최대의 화석연료 보험사로, 작년에 약 16억~22억 달러의 보험료를 벌어드린 것으로 나타났다.[6]

로이드와 함께,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에베레스트 리Everest Re, 스타Starr, W.R. 버클리W.R. Berkley는 마지막까지 화석연료 보험을 인수할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사가 채택한 석유 및 가스 제한 조치 중 상당수는 그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이다. 이 보고서에서 평가한 30개 기업의 석탄 폐지 정책은 10점 만점에 평균 3.8점을 받았지만 석유 및 가스 제한 정책은 10점 만점에 1.4점에 불과했다.

화석연료 폐지 정책으로 전환한 스코르SCOR는 제너럴리Generali, 스위스 리Swiss Re, 취리히 Zurich, QBE, 악사AXA를 큰 격차로 제치고 1위의 자리를 지켰다. 많은 기업이 석탄 투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업스트림 석유 및 가스 확장 계획이 있는 기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 보험사는 스코르SCOR가 유일하다.

기후 위험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포기하는 보험사들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서 호주, 미국 등의 국가의 기후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을 철회하고 있다. AIG Re, 악시스 캐피탈AXIS Capital, 악사 XLAXA XL, 에베레스트 리Everest Re, 스코르SCOR 및 트랜스 리TransRe 와 같은 메이저 재보험사들은 자연재해에 대한 보장을 줄이거나 아예 부동산 시장을 떠났으며, 이로 인해 보험료가 급등했다. 보험사는 기후 위험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보장을 중단하는 한편, 화석연료 사업에 보험을 제공하고 투자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계속 부추기고 있다.

올해는 보험 업계가 기후 변화의 위험에 대해 처음 경고한 지 50년이 되는 해이자 세계 최대 보험사 CEO들이 모이는 싱크탱크인 제네바 협회의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보험 업계는 여전히 기후 변화에 미흡하게 대응하고 있다. 글래스고 기후 정상회의가 열린 지 2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보험사가 탄소중립을 약속했으나 이는 서류 작업에 그칠 뿐, 소극적인 실천과 많은 그린워싱을 초래했다.

올해 11월 28~29일 두바이에서 열리는 COP28 기후 정상회의 전날, 제네바 협회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보험사 CEO들이 취리히에서 열리는 회의에 모일 예정이다. 세계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는 데 있어 보험사의 역할이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CEO들은 업계에서 기후 변화가 글로벌 사회에 어떠한 위험을 미치는지 인식해 왔다. 이들은 화석연료에서 청정 기술로의 글로벌 전환을 지원하고 가속화할 수 있는 강력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시점에 CEO와 그들의 회사는 대부분의 다른 금융 기관 및 정부와 함께 기후 위기를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무효화할 위험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석유 및 가스 추출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도록 보장하고 투자함으로써 기후변화라는 불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가 황폐화되고 보험 리스크가 클수록 보험 산업은 종속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 회사는 기후 행동을 확대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탈석탄 정책을 통해 화석연료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석유와 가스에 대해서도 유사한 정책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세계 최대 화석연료 보험사

기업 정보의 투명한 공개 요구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은 상업 기밀과 같이 잘 공개되지 않는다. 몇 가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어떤 보험사가 어떤 기업 및 프로젝트에 화석연료 관련 보험을 제공하는 지 알아 내기는 어렵다. 보험 업계의 최대 시장 연구기관인 인슈라모어Insuramore에서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보험 연구를 진행했다.

인슈라모어insuramore는 2022년에 화석연료 직접 보험료(원수보험료)를 212.5억 달러로 추정하여 이는 2021년 대비 약 6% 증가한 수치이다. 해당 원수보험료에는 화석연료 기업의 종속 captive보험 및 재보험 규모는 포함되지 않는다.[27]

인슈라모어insuramore의 추정에 따르면 가장 큰 석유 및 가스 보험사는 이지스AEGIS, PICC 및 소가즈SOGAZ로 나타났다. 그 외 처브Chubb, 알리안츠Allianz, 취리히Zurich, W.R. 버클리W.R. Bekley, 악사AXA, 에버렌Everen, 에버렌 스페셜티Everen Specialty가 뒤를 따랐다.

석탄 보험 시장에서는 OECD 외 국가의 보험사 사업 규모가 더 컸다. 상위 3개 보험사는 PICC, 중국 석탄 보험China Coal Insurance, 잉다 타이헤Yingda Taihe였으며, 페어팩스 파이낸셜Fairfax Financial, 핑안Ping An, 리버티 뮤추얼Liberty Mutual, FM글로벌FM Global, 스타Starr 및 AIG가 뒤를 이었다.

화석연료 보험사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대중적인 브랜드의 다중 라인 보험사로, 합산 시장 점유율 37% (석유 및 가스 38%, 석탄 33%): 처브Chubb, 알리안츠Allianz, 악사AXA, 취리히Zurich, AIG, 라이버티 뮤추얼Liberty Mutual, 도쿄 해상Tokio Marine, 마프레Mapfre, 트래블러스Travelers, QBE, MS&AD
- 중국 및 러시아와 같은 OECD 이외 국가의 보험사로 합산 시장 점유율 27% (석유 및 가스 23%, 석탄 44%): PICC, 소가즈Sogaz, 잉다 타이헤Yingda Taihe, 핑안Ping An, 중국 석탄 보험China Coal Insurance, 중국 태평양China Pacific
- OECD국가 전문 보험사로 합산 시장 점유율 15% (석유 및 가스 25%, 석탄 16%): 페어팩스 파이낸셜Fairfax Financial, W.R. 버클리W.R. Bekley, 스타Starr,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로이드 시장 Lloyd's market 보험사는 개별적으로 평가되었으며, 2022년 비종속 화석연료 보험 시장의 약 9%를 차지한다. 원수보험료 규모는 16~22억달러로 추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16페이지 참고)

종속 보험사[captive insurer]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기업들에 의한 상호 보험사와 OECD 이외 국가의 보험사는 명성과 평판 리스크가 적다. 개인 고객이나 브랜드가 없고, 상장되어있지 않거나 NGO 캠페인이 적은 국가에서 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보험사와 자체 보험사 및 대부분의 종속보험사[captive insurer]는 사업 보장을 위해 재보험을 다시 든다.

예를 들어 이지스[AEGIS]와 에버렌 스페셜티[Everen specialty]는 2022년에 각각 38%, 22%의 사업에 대해 재보험을 가입했다. 이러한 예시에서 알 수 있듯 재보험사의 화석연료 정책은 개별 보험 및 계약을 통해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에 중요 역할을 한다.[29]

인슈라모어[Insuramore] 추정에 의한 상위 10개 화석연료 보험사 (단위: 백만 달러)

순위	보험사명	HQ 국가	원수보험료 추정 범위	중간 규모
1.	AEGIS	버뮤다 Bermuda	1,550–1,850	1,700
2.	PICC	중국 China	1,250–1,650	1,450
3.	SOGAZ INSURANCE GROUP	러시아 Russia	800–1,100	950
4.	CHUBB	스위스 Switzerland / 미국 USA	550–850	700
5.	Allianz	독일 Germany	475–775	625
6.	AXA	프랑스 France	450–750	600
6.	FAIRFAX FINANCIAL HOLDINGS LIMITED	캐나다 Canada	450–750	600
6.	ZURICH	스위스 Switzerland	450–750	600
9.	Berkley	미국 USA	525–625	575
10.	AIG	미국 USA	425–675	550

권고 사항

“Insurers have to assess risks to our future. If they can’t see the damage that fossil fuels cause to our future and the risks they are creating for our people, what’s their point?”

“보험사는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화석연료가 우리의 미래에 끼치는 피해와 그것이 초래하는 위험을 보지 못한다면 평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Joseph Sikulu, Pacific Climate Warriors

(조셉 시쿨루, 태평양 기후 활동가)

2017년부터 IOF 캠페인은 보험 업계에 파리협정의 1.5°C 목표에 맞춰 회사를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2023년 3월, 이 캠페인은 그림 1에 표시된 30개 주요 국제 화석연료 보험사에 서한을 보내 파리 협정에서 설정한 목표에 부합하는 6가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아래 권고사항 참조).

지난 5월, IOF 캠페인은 30개 보험사에 설문지와 기준을 공유하여 각 보험사의 정책 점수를 매기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2023년 7월 15일까지 회신을 요청했고,[7] 이에 2023년 10월 중순 기준 19개 기업이 응답했다.[8] 응답 및 기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도 수집하여 연구 및 캠페인 단체인 리클레임 파이낸스Reclaim Finance와 IOF 캠페인이 협력하여 분석 및 평가했다. 각 기업의 점수는 보고서 발간 전 기업에 고지했다.

평가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nsure-our-future.com/scorecard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고 사항

1

신규 및 확장 석탄, 석유,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Immediately cease insuring new and expanded coal, oil, and gas projects.

2

신뢰할 수 있는 1.5°C경로에 부합하지 않는 화석연료 부문의 신규 고객에 대한 보험 가입을 즉시 중단하고, 기존 고객의 석탄, 석유 및 가스 생산 확대를 지원하는 보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십시오. 2년 이내에 이러한 경로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화석연료 회사 고객에 대한 모든 보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십시오.

Immediately stop insuring any new customers from the fossil fuel sector which are not aligned with a credible 1.5°C pathway, and stop offering any insurance services which support the expansion of coal, oil and gas production at existing customers. Within two years, phase out all insurance services for existing fossil fuel company customers which are not aligned with such a pathway.

3

신뢰할 수 있는 1.5°C경로에 부합하지 않는 석탄, 석유, 가스 회사 관련 제3자를 위해 관리되는 자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즉시 매각하십시오.

Immediately divest all assets, including assets managed for third parties, from coal, oil,and gas companies that are not aligned with a credible 1.5°C pathway.

4

투명하고 포괄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1.5°C 경로에 부합하는 구속력 있는 보험 배출량 감축 목표를 즉시 정의하고 채택하십시오.

Immediately define and adopt binding targets for reducing insured emissions which are transparent, comprehensive and aligned with a credible 1.5°C pathway.

5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에 명시된 대로 영향을 받는 원주민의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정보에 입각한 동의(FPIC)를 받고 문서화하는 요건을 포함하여 고객이 모든 인권을 완전히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강력한 실사 및 검증 메커니즘을 즉시 채택하십시오.

Immediately adopt robust due diligence and verification mechanisms to ensure that clients fully respect and observe all human rights, including a requirement that they obtain and document the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 of impacted Indigenous Peoples as articulated in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6

신뢰할 수 있는 1.5°C경로에 따라 스튜어드십 활동, 무역 협회 가입, 주주 및 기업 시민으로서의 공적 입장을 투명한 방식으로 즉시 도입하십시오.[9]

Immediately bring stewardship activities, membership of trade associations and public positions as a shareholder and corporate citizen in line with a credible 1.5°C pathway ina transparent way.[9]

로이즈 오브 런던 Lloyd's of London: 기후 파괴의 최후의 보루

로이드 시장Lloyd's market의 보험사를 모두 합하면 세계 최대의 화석연료 보험사가 된다. 인슈라모어Insuramore에 따르면, 로이드 보험사는 2022년 화석연료관련 보험 총 수입료(원수보험료)의 16–22억 달러를 차지했다. 로이드 시장이 화석연료 산업을 주도하는 것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 2021년 베트남에 Vung Ang 제2 석탄 발전소 건설에 13개의 로이드 보험사가 총 보험의 27%를 제공했으며,[44] 북해North sea의 석유 및 가스 회사에 보험을 제공한 69개 보험사 중 28개가 로이드 보험사이다. 또한 로이즈는 미국의 석탄 채굴 보험사 중 두번째로 규모가 크다. (자세한 내용은 32페이지의 '미국의 석탄 채굴 보험' 참고)

6개 이상의 보험사가 호주의 아다니 그룹Adanu Group의 카마이클 탄광Carmichael coal mine에 건설 및 운영 보험을 제공했었으나, 프로비타스Probitas 1492는 2022년 12월 이후 보험 제공을 중단했다. 해밀턴Hamilton, 마르켈Markel, 르네상스 리RenaissanceRE, SA 미콕SA Meacock 및 스타Starr 등의 로이드 보험사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45]

로이드는 2020년 12월 석탄, 타르 샌드 및 북극에 대한 정책을 채택했으나 이를 보험사에 의무로 요구하지는 않았다. 로이드는 올해 ESG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IOF 캠페인 파트너인 리클래임 파이낸스Reclaim Finance의 분석에 따르면 로이드 보험시장의 80%를 차지하는 20개 대형 보험사간에 화석연료 정책에 간극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리버스톤RiverStone, 초서Chaucer, 르네상스리RenaissanceRe, 애스콧Ascot 및 이지스Aegis 등 5개 매니징 에이전트Managing Agent는 화석연료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반면 악사 XLAXA XL, 하노버 리Hannover Re(Argenta), 뮌헨 리Munich Re의 경우 신규 석유 및 가스 추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배제 정책을 세웠다 (악사 XL의 경우 2025년부터 해당 정책을 실시한다).[46]

뮌헨 리의 도미닉 호어(Dominick Hoare)는 "화석연료는 기후변화에 의심할 여지없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보험사에 극적인 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이드 시장은 여전히 기후 파괴의 최후의 보루로 남고 싶어하는 듯 하다.

평가 표

(재)보험사	국가	언더라이팅						투자	
		언더라이팅		석탄		총합		총합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1		
							2		
							3		
알리안츠 Allianz		3.7	3	10.0	1	6.6	4	4.0	9
제너럴리 Generali		4.0	1	8.3	4	5.4	5	5.8	2
아비바 Aviva		4.0	1	7.8	6	5.1	6	4.8	8
스위스 리 Swiss Re		3.3	5	8.8	3	4.6	7	5.6	3
악사 AXA		2.0	9	9.3	2	4.5	8	5.6	3
하노버 리 Hannover Re		3.4	4	6.2	9	4.0	9	3.2	12
악시스 캐피탈 Axis Capital		1.3	13	8.2	5	3.9	10	4.9	5
취리히 Zurich		1.5	11	7.8	7	3.5	11	5.3	6
뮌헨 리 Munich Re		2.4	7	5.6	10	3.2	12	3.1	13
스코르 SCOR		1.7	10	6.5	8	3.1	13	10.0	1
HDI 글로벌 탈란스 HDI Global - Talanx		2.5	6	4.7	12	3.1	14	3.5	11
마프레 Mapfre		2.1	8	5.2	11	3.0	15	4.0	9
QBE		1.2	16	4.0	13	2.1	16	5.1	7
AIG		1.3	14	2.7	14	1.6	17	2.4	14
처브 Chubb		1.3	12	2.0	16	1.5	18	1.1	22
솜포 Sompo		1.2	15	2.0	16	1.4	19	2.2	17
MS&AD		1.0	17	2.0	16	1.3	20	2.2	18
도쿄해상 Tokio Marine		1.0	17	2.0	16	1.3	20	2.2	18
삼성화재 Samsung FM		1.0	17	2.3	15	1.3	22	2.2	18
하드포드 The Hartford		0.9	20	2.0	16	1.3	23	2.4	14
트래블러스 Travelers		0.9	20	2.0	16	1.2	24	2.4	14
핑안 Ping An		0.0	23	1.3	22	0.6	25	1.1	22
리버티무츄얼 Liberty Mutual		0.0	23	1.3	22	0.4	26	1.1	22
로이즈 Lloyd's		0.1	22	0.1	24	0.1	27	2.2	18
WR 버클리 WR Berkley		0.0	23	0.0	25	0.0	28	1.1	22
버크셔 해서웨이 Berkshire Hathaway		0.0	23	0.0	25	0.0	28	0.0	26
에베레스트 리 Everest Re		0.0	23	0.0	25	0.0	28	0.0	26
PICC		0.0	23	0.0	25	0.0	28	0.0	26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 Sinosure		0.0	23	0.0	25	0.0	28	0.0	26
스타 Starr		0.0	23	0.0	25	0.0	28	0.0	26

이 순위의 처음 세 줄은 비어 있다. 일부 보험사는 특정 정책 측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달성했지만, 기후 위기에 필요한 전반적인 리더십을 보여준 보험사는 없었다.

평가기준

0.0 – 1.4	1.5 – 3.4	3.5 – 7	7.1 – 10

보험업계에서 알고 있던 50년간의 기후 실패

“History is coming for the planet-wreckers, the fossil fuel barons and their enablers, profiting from destruction. Together, the rest of us can write a different story”

“지구를 파괴하는 자들, 화석연료 재벌과 그 조력자들이 파괴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역사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 모두 함께라면 다른 역사를 쓸 수 있다.”

UN Secretary-General António Guterres, May 2023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UN Secretary-General António Guterres, 2023년 5월)

1973

기후 재앙에 대한 보험업계의 첫 경고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3년 8월, 뮌헨 리Munich Re는 기온 상승이 “빙하와 극지방 축소, 호수 수량 감소,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 증가에 대해 보험 업계 최초로 경고문을 발표했다.[10]

1990년 11월, 스위스 리Swiss Re 는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한 기록적인 보험금 손실은 (…) 기후변화로 인한 결과로 손해보험 업계의 책임이 매우 확대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상당한 과학적 증거”라고 강조하며 또 다른 경고를 발표했다.[11]

2023년은 기록 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미국 및 전 세계 여러 지역이 끊임없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전례 없는 규모와 기세의 산불로 캐나다, 그리스, 마우이 섬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다. 50년 전 뮌헨 리Munich Re가 경고했듯, 리비아에서 발생한 홍수로 1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브라질, 인도, 한국, 수단,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등 홍수 피해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산업화된 세계와 글로벌 남부의 이러한 기후 재난은 주로 여성, 어린이, 이민자 사회, 원주민 등 기후 위기에 기여하지 않은 가난하고 소외된 집단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 불안, 공중 보건 위기, 해수면 상승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기도 하다.

보험 업계는 이러한 영향 또한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다. 영국의 저명한 보험계리사회(IFoA)는 2023년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현재 1.2°C의 온난화 수준에서 이미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다.[12]

5년 전, IPCC는 1.5°C를 넘어선 지구 온난화의 극명한 결과를 설명했다. 지구 평균 기온이 2°C 상승하면 산호초가 완전히 파괴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손실이 발생하고, 폭풍우와 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며, 수억 명의 사람들이 기후 위험과 빈곤에 노출될 것이다.[13]

IPCC는 2023년 3월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우리가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조취를 취한다면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IPCC는 국제에너지지구 IEA의 연구 결과를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는 더 이상 확대되서는 안되며, 기존 화석연료 자산을 빠르게 축소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월에 "2023년은 심판의 해"라고 경고하며 이와 같이 역설했다.[14] "올해는 기후 행동의 판도를 바꾸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파괴를 끝내기 위해서는 방해가 필요하다. 더 이상 걸음마 단계는 없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말라. 더 이상 그린워싱은 없다."

2022년 11월에 발표된 IFoAInstitute and Faculty of Actuaries의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1.5°C의 지구 온난화도 매우 위험하다"며 "이는 거의 사회가 폐허가 될 시나리오이며, 우리가 초과해서는 안 되는 선"이라고 밝혔다.[15]

그러나 기후 위기가 심화되고 과학자들과 세계 지도자들의 심각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생산은 2022년에도 계속 증가하여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용량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16] IEA는 석탄, 석유, 가스에 대한 수요가 향후 몇 년 내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EA 전무이사인 피터 비롤Fatih Birol은 "오늘날의 정책에 기반하여 예상되는 수요 감소는 지구 온난화를 1.5℃로 제한할 수 있을 만큼 급격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17]

655

신설 진행 단계의 석탄 발전소

앞으로도 수천 개의 새로운 화석연료 프로젝트가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lobal Energy Monitor에 따르면 수백 개의 석탄, 석유 및 가스 추출 프로젝트 외에도 현재 655개의 석탄 발전소, 238개의 액화 화석 가스(LNG) 수입 터미널, 980개의 가스 발전소, 21만 km의 가스 파이프라인, 3만 1천 km의 송유관 건설이 제안되었거나 건설 중이다.[18] 이 프로젝트가 건설되면 향후 수십 년 동안 소비 증가가 고착화되고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릴 것이다.

기후 위기를 인수하다

현재 진행 중인 수천 개의 신규 화석연료 프로젝트 중 거의 모든 프로젝트가 보험 없이는 진행될 수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대부분의 생산은 보험이 없으면 금방 중단될 것이다. 2021년 11월에 토마스 버블 Thomas Buberl 악사AXA CEO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적이든 공적이든, 보험사든 자산운용사든 어떤 형태로든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1]

또한 보험사는 사회의 리스크 관리자이자 기후 위험에 대한 조기 경고자로, 또한 현대 산업 발전의 숨은 주역 중 하나로서 유엔 사무총장이 촉구한 획기적인 기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험사가 기후 과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보험 인수 및 투자 전략을 신뢰할 수 있는 1.5°C 경로에 완전히 맞추고 화석연료 확대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할 것이다. 또한 그들은 다배출 고객들과 화석연료에서 전환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무역협회와의 협력 등을 이용하여 과감한 기후 정책을 옹호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2023년 9월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 높은 수준의 기후 목표를 선언할 수도 있었다. 일부 보험사는 현재 화석연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오염원이 기후 재난으로 인해 증가하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기후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를 위해 보험료를 저렴하게 유지할 수 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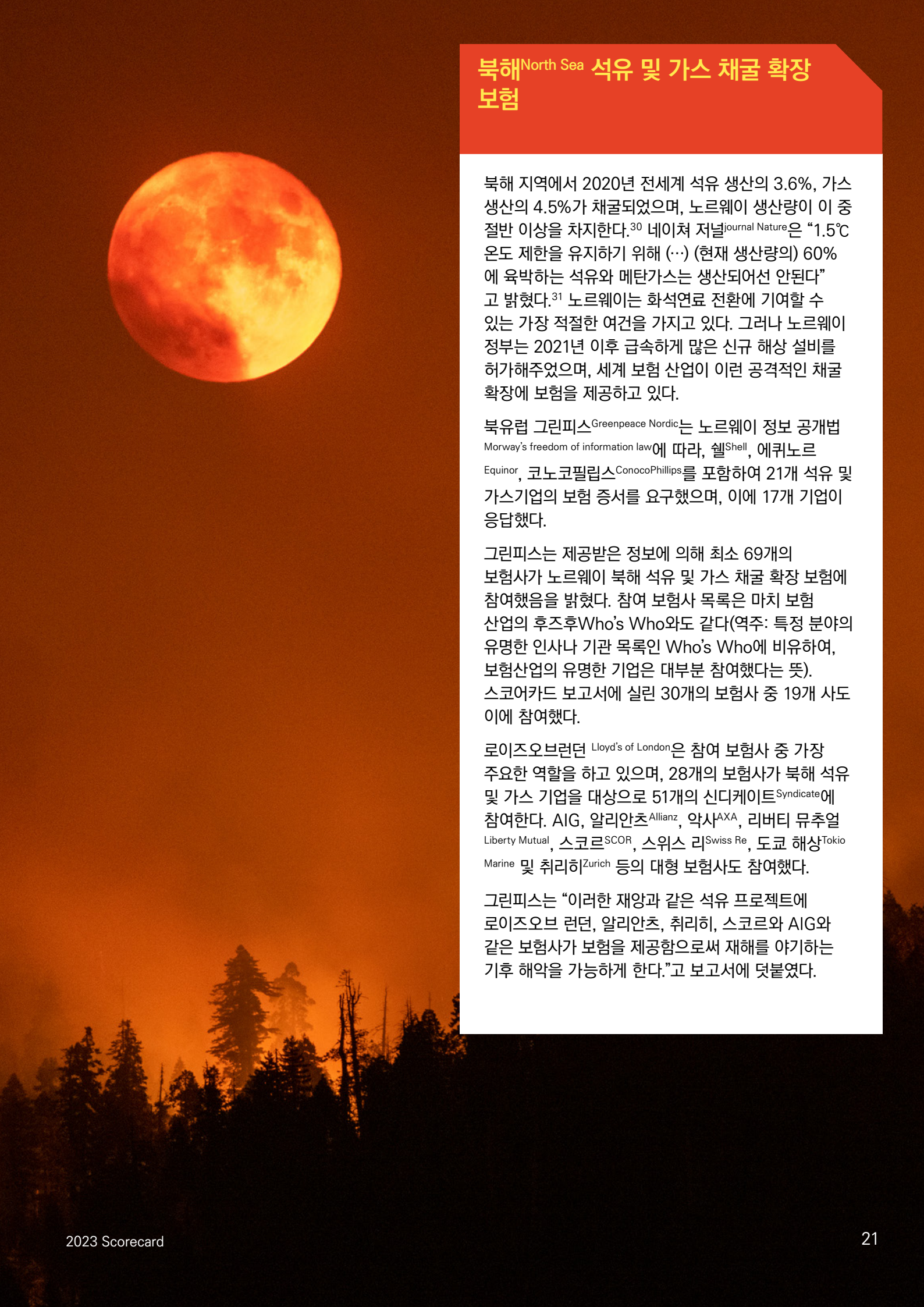
그러나 이 중 실현된 것은 한가지도 없다. 신속하고 과감한 기후 조치를 통해 지구 온난화를 1.5°C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인류의 마지막 기회인 지금, 보험업계는 여전히 석탄, 석유, 가스 산업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으며, 더해서 이전 발표했던 기후 관련 서약을 일부 철회하고 있는 곳도 있다.

$21BN

2022년 화석연료 산업의 직접 보험료

보험사들의 기후변화 대응 약속은 석탄으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했지만, 아직 석유 및 가스 부문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제한을 하진 않았다. 인슈라모어Insuramore의 추정에 따르면 화석연료 산업의 직접 보험료 총액(종속 보험 제외)은 200억 달러에서 2022년 212억 5천만 달러로 증가했다.[2] (12–13 페이지 참조: 세계 최대의 화석연료 보험사.) 글로벌 중개업체 Willis Towers Watson의 에너지 부문 보험에 관한 최근 보고서는 "ESG에 대한 관심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3]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입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험사는 현재 에너지 시장을 주체적으로 형성하려는 노력보다는 수동적으로 트렌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석연료 보험사인 컨벡스Convex의 에너지 손해보험 선임은 "[우리의] 에너지 포트폴리오는 글로벌 에너지 수요를 반영할 것"이라며 "에너지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 알고 있다. 우리는 주주들에게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한 (에너지 흐름의) 일부가 되고 싶다."고, 보험 업계에서 널리 공유되는 정서를 반영한 의견을 제시했다.[4]



북해North Sea 석유 및 가스 채굴 확장 보험

북해 지역에서 2020년 전세계 석유 생산의 3.6%, 가스 생산의 4.5%가 채굴되었으며, 노르웨이 생산량이 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30] 네이쳐 저널journal Nature은 "1.5℃ 온도 제한을 유지하기 위해 (…) (현재 생산량의) 60%에 육박하는 석유와 메탄가스는 생산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31] 노르웨이는 화석연료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노르웨이 정부는 2021년 이후 급속하게 많은 신규 해상 설비를 허가해주었으며, 세계 보험 산업이 이런 공격적인 채굴 확장에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북유럽 그린피스Greenpeace Nordic는 노르웨이 정보 공개법Morway's freedom of information law에 따라, 쉘Shell, 에퀴노르Equinor,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를 포함하여 21개 석유 및 가스기업의 보험 증서를 요구했으며, 이에 17개 기업이 응답했다.

그린피스는 제공받은 정보에 의해 최소 69개의 보험사가 노르웨이 북해 석유 및 가스 채굴 확장 보험에 참여했음을 밝혔다. 참여 보험사 목록은 마치 보험 산업의 후즈후Who's Who와도 같다(역주: 특정 분야의 유명한 인사나 기관 목록인 Who's Who에 비유하여, 보험산업의 유명한 기업은 대부분 참여했다는 뜻). 스코어카드 보고서에 실린 30개의 보험사 중 19개 사도 이에 참여했다.

로이즈오브런던 Lloyd's of London은 참여 보험사 중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28개의 보험사가 북해 석유 및 가스 기업을 대상으로 51개의 신디케이트Syndicate에 참여한다. AIG, 알리안츠Allianz, 악사AXA, 리버티 뮤추얼Liberty Mutual, 스코르SCOR, 스위스 리Swiss Re, 도쿄 해상Tokio Marine 및 취리히Zurich 등의 대형 보험사도 참여했다.

그린피스는 "이러한 재앙과 같은 석유 프로젝트에 로이즈오브 런던, 알리안츠, 취리히, 스코르와 AIG와 같은 보험사가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재해를 야기하는 기후 해악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고서에 덧붙였다.

화석연료 정책의 미세한 발전

2022년 10월 마지막 스코어카드 보고서가 발표되었을 때 스위스 리Swiss Re, 알리안츠Allianz, 뮌헨 리Munich Re에서 기존 석유 및 가스 사업에 실질적인 제한을 도입하여, 보험업계의 석유 및 가스 사업 이탈이 가속화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난 한 해의 정책 발전 속도는 다시 더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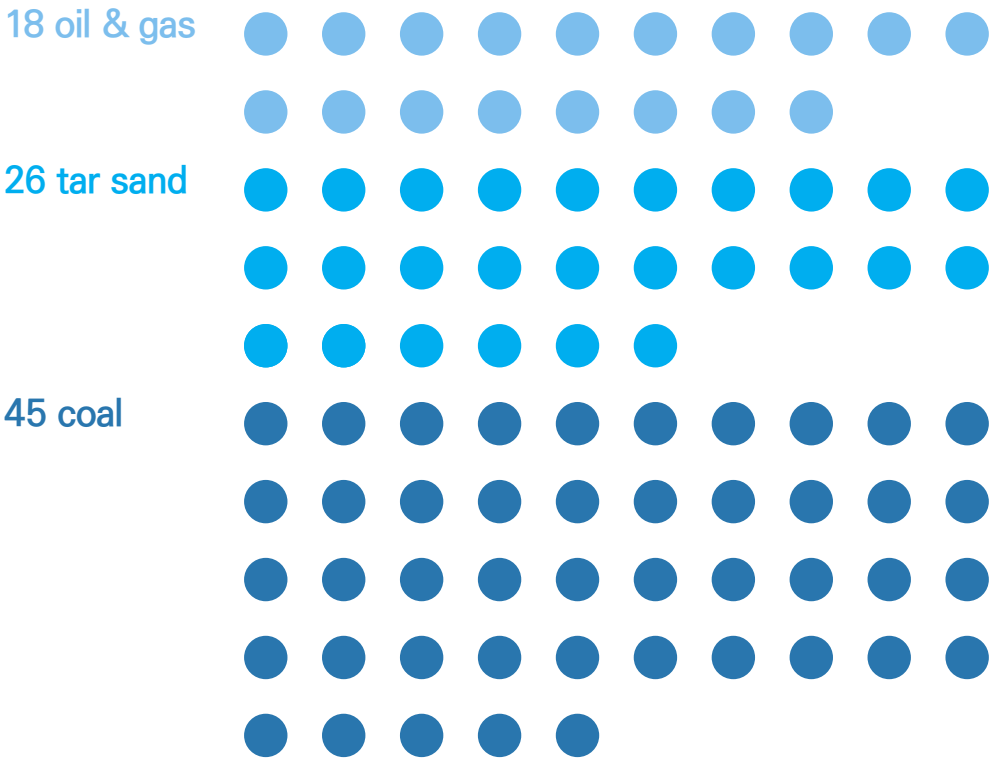
2022년 12월, 코리안 리Korean RE는 신규 탄광 및 석탄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개별 재보험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코리안리는 아시아 재보험사 중 최초로 이러한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국가 에너지 정책이나 사회적 필요에 따라 '제한된 상황'에서 예외를 적용했다.

2023년 3월, 로이드의 대형 보험사인 비즐리Beazley는 더 이상 "신규 석탄 화력, 오일 타르 샌드 또는 북극 에너지 탐사 프로젝트와 이 분야에서 5%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의 보험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처브Chubb는 3월에 국립공원 및 기타 보호 구역 내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와 메탄 감축 계획이 없는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을 중단했다. 이러한 조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지만, 미국 보험사가 채택한 전통적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첫 번째 제한 조치이며 미국 화석연료 로비의 강력한 기후 행동 반대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알리안츠의 모델에 이어 독일 보험사 탈란스Talanx는 5월에 신규 유전 및 가스전, 신규 석유 발전소, 신규 유전과 직접 관련된 기타 신규 인프라에 대한 보험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일본 보험사 MS&AD는 석유 및 가스 회사의 석유 및 가스 채굴에 대한 보험을 계속 인수하고 있지만, 더 이상 석탄 회사의 석유 및 가스 추출에 대한 신규 보험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정책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원수보험사 18개 석유 및 가스 제한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림 2: 섹터별 화석연료 제한 정책을 수립한 보험사 수



2년간의 보험 업계 넷제로 그린워싱

기업의 기후 조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다수의 보험사와 금융기관이 글래스고Glasgow COP26에 앞서 넷제로 선언을 발표했다. 2021년 6월, 여덟 개의 보험사가 UN 레이스 투 제로Race to Zero 캠페인의 일환으로 넷제로보험연합NZIA Net-Zero Insurance Alliance을 발족했다.

NZIA는 높은 목표 수준을 가지고 시작했었으나, 멤버사가 늘어나면서 가입 탈퇴 방지를 위해 목표 수준이 완화되기 시작했다. NZIA는 넷제로투자자연합NZAOA Net-Zero Asset Owner Alliance과 달리 화석연료에 대한 어떠한 지침이나 의무도 채택하지 않았다.

NZIA의 주요 성과는 2023년 1월 발표된 목표 설정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프로토콜의 기준은 매우 약하다. 신규 화석연료 프로젝트로 인한 배출량은 언급하지 않으며, 2030년까지의 최소 감축 비율이 34%로만 설정되어 있다 (IPCC는 43% 감축 목표). 또한 고객에게 실제 배출요구가 아닌 단순한 대화를 통한 인게이지먼트도 허용한다.[32]

미국 보험 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주 정부에 의해 규제된다. NZIA의 약한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NZIA 멤버사들은 반 ESG 캠페인에 의한 화석연료 로비 대상이 되었다. 2023년 5월, 23개 주의 법무장관이 NZIA 멤버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을 주장한 것이다.

2023년 9월 말, 반 ESG캠페인 압박에 의해, NZIA의 31개 멤버 중 20개가 탈퇴했다. 악사AXA CEO 토마스 부베를 Thomas Buberl은 "내 업무는 보험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23개 주 변호사와 협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덧붙였다.

뮌헨 리Munich RE, 스위스 리Swiss RE와 같은 많은 주요 보험사는 기후 서약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이는 레이스 투 제로Race to Zero 캠페인에 약속한 대로 6월까지 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7월 말까지 넷제로 목표를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로서는 소수의 보험사만이 전환 계획과 배출량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알리안츠Allianz, 악사 AXA, 피델리Fidelis, NN 그룹the NN Group, 스코르SCOR, 도쿄 해상Tokio Marine가 포함됨.). 인슈라모어Insuramore에 의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화석연료 보험사로 평가되는 알리안츠Allianz는 상업 부동산 및 재해 (보험)포트폴리오의 원단위 배출량을 2030년까지 45%로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아직까지 2019년 대비 2030년 보험 포트폴리오 절대 배출량을 34%로 감소라는 NZIA의 목표 설정 프로토콜에 부합하는 목표를 발표한 곳은 없다.

IOF 캠페인은 대형보험사를 대상으로 농업, 자동차, 시멘트 및 철강과 같은 다배출 산업에 대한 전환 독려 목적의 인센티브 부여 방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보험사는 전환 독려를 위한 구체적인 지식이나 계획이 없다고 조사되었다. 넷제로 보험은 벌거벗은 임금님이나 다름 없는 상태인 것이다.

IEA에서 2021년 5월 '넷제로 로드맵net-zero road map'이 발표된 이후, 과학자들은 세계 탄소 예산Carbon budget은 신규 화석연료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없으며 에너지 전환이 더욱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에 맞춘 사업 전략 수립 보다는 관료적인 대응만을 보여왔다. 보험사의 이러한 행태는 실질적인 결과는 도출 되지 않았고, 계속된 화석연료 사업을 통한 수익은 오히려 그린워싱으로 간주된다.

취리히Zurich 보험의 CEO 마리오 그레코는 화석연료 사업 보험인수를 지속하는 반면, 2023년 8월 이와 같이 말했다. "모든 기업은 어떤 것을 믿는지 보여줘야한다. [기후] 연합뒤에 숨어선 안된다".[34] NZIA의 실패를 통해 개별 화석연료 보험사의 기후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으며, 규제기관, 기후 캠페이너,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그린워싱 감시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또한 5월에는 네덜란드의 중견 보험사인 ASR이 “석탄 및 비전통적 석유 및 가스 제품(셰일 가스, 북극 석유, 타르 샌드 등) 생산자”에 대한 보험 인수를 중단했다. 다른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화석연료 회사들은 보험 인수를 받으려면 1.5°C에 부합하는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6월에 스위스의 중견 보험사인 헬베티아Helvetia는 신규 석탄 채굴, 석탄 발전, 비전통적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 인수를 중단했다. 헬베티아는 생산량을 확대하는 기존 석유 및 가스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지만,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6월에는 오스트리아의 중견 보험사인 우니카Uniqa가 2024년과 2025년부터 각각 신규 석유와 가스 사업 인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오스트리아의 보험사는 2030년과 2035년까지 석유 및 가스에서

그림 3: 보험사별 석유 및 가스 폐지 정책 수립 연도

사업 수익의 5% 이상을 창출하는 모든 기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우니카의 규제는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부문에 적용되며 다른 보험사가 따라야 할 선도 사례를 제시한다.

몇몇 다른 보험사들은 석유 및 가스 제한을 크게 강화했다. 5월에 프랑스 재보험사 스코르SCOR는 신규 유전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 인수 배제 사항을 추가하여 신규 유전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예외적인[23] 경우만을 포함시켰다. 스코르은 신뢰할 수 있는 과학 기반 전환 계획을 수립한 기업에 대해서 예외를 적용할 예정이다.

7월 악사AXA는 신규 석유 및 가스 탐사 프로젝트 배제 정책 범위를 확대하여 석유는 2024년부터, 가스는 2025년 9월부터 신규 개발 프로젝트도 배제하기로 하였다. 스코르과 마찬가지로 악사는 신뢰할 수 있는 전환 계획을 가진 기업에 대해 예외를 제공하지만, 신규 채굴 프로젝트가 신뢰할 수 있는 전환 계획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외에도 수많은 보험 회사가 특정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 인수를 배제하고 있다. 캠페인 그룹의 압력으로 46개 보험사가 호주 아아다니Adani그룹의 카마이클 탄광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2023년 10월 초까지 23개 보험사가 우간다/탄자니아의 동아프리카 원유 파이프라인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20개 보험사가 알래스카 북극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그위친족Gwich'in 원주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63%

석탄 폐지 정책 수립한 재보험사 시장 점유율

많은 화석연료 프로젝트가 원주민의 토지와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만, 악시스 캐피탈AXIS Capital은 자유로운 사전 인지 동의 (FPIC)가 없는 원주민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유일한 보험사이다. 알리안츠Allianz와 스위스 리Swiss Re는 인수 심사에 FPIC심사가 포함되어있다.

47%

석유 및 가스 제한 정책을 수립한 재보험사 시장 점유율

2022년 한해는 4개 보험사가 추가로 탈석탄 정책을 채택했고(총 45개), 5개 보험사가 극지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새로운 제한 정책을 발표했으며(총 26개), 나머지 4개 보험사는 비전통적 석유 및 가스(총 18개)에 대한 제한 정책을 발표했다.[6]

지난 1년 동안 화석연료 제한 정책을 도입한 보험사의 시장 점유율은 석탄 보험에서 39.8%에서 41.2%로, 석유 및 가스 보험에서 15.4%에서 19.6%로 증가했다. 제한 정책을 도입한 재보험사의 시장 점유율은 석탄은 58.2%에서 62.7%로, 석유 및 가스는 43.4%에서 46.7%로 각각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현재의 긴급한 상황을 충족시켜주진 않는다.

특히 석유와 가스에 대한 많은 기업의 규제에는 여전히 구멍이 많다. 이 보고서에서 평가한 30개 보험사 중 큰 예외 없이 신규 석유 및 가스 추출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 인수를 중단한 보험사는 아비바Aviva, 제너럴리Generali, 독일 보험사인 알리안츠Allianz, 하노버 리Hannover Re, 뮌헨 리Munich Re 및 탈란스Talanx뿐이다. LNG 터미널 및 가스 발전소와 같은 신규 미드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가스 인프라에 대한 보장을 종료한 보험사는 거의 없으며, 향후 수십 년 동안 채굴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노버 리 만이 신규 석유 및 가스 생산에 해당하는 신규 미드스트림 인프라에 대한 보험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IOF 파트너들은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s에 따른 체계적인 정보 요청을 통해 어떤 보험사가 여전히 석유와 가스 확장에 기여하고 탈석탄 계획 없이 석탄 채굴을 계속하는 화석연료 회사에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 (12–13페이지 참조: 세계 최대의 화석연료 보험사)

허울뿐인 탄소중립Net-zero 약속

보험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석유 및 가스 채굴 확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정당화하고 있다. 먼저, 화석연료 회사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인게이지먼트를 진행하는 것이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보험사는 또한 특정 섹터와 프로젝트에 대한 보장을 제한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모든 영역을 포함하여) 넷제로 경로를 따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석탄, 석유 및 가스 기업에 화석연료 생산 중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신규 채굴 프로젝트 지원 배제 정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수많은 보험사가 석탄 부문에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세계 글로벌 보험 중개인과 석탄 기업 경영진은 최근 몇 년간 탈석탄 전환의 원동력 중 하나가 보험 제공 부족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반대로, 석유 및 가스 회사들에게 기후 과학에 맞춰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석유 및 가스 채굴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보험사들이 신규 채굴 프로젝트를 인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한 신뢰할 수도 없고 효과적이지도 않다.

보험사들은 석유 및 가스 기업의 화석연료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업들의 실질적인 전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넷제로 약속을 하고 석탄에서 가스 생산으로 전환하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를 통해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판매하는 석유와 가스의 연소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배출량은 그들의 수명 주기 배출량Life-Cycle Emission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IOF캠페인이 화석연료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인게이지먼트 정책의 성공 여부를 조사했을 때, 석유 및 가스 기업의 핵심 사업 변화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석유 메이저 기업들은 올해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약속을 철회하기도 했으며, 석유 및 가스 업계는 현재 미국에서 탄소중립 및 ESG를 약속한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정치 캠페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최소 31개 보험사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NZIA에 가입했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는 미국의 반(反) ESG 캠페인의 압력으로 탈퇴했지만, 개별 보험사 차원에서 탄소중립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NZIA에 가입하면서 보험사들은 2023년 6월에 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7월에는 보험에 가입한 프로젝트와 기업의 배출량 감축 목표를 발표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가 약속을 번복했거나 애초에 약속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지 23 참조: 2년간의 보험 업계 넷제로 그린워싱)

보험사들은 사회 전체가 2.7°C의 지구 온난화를 향해 나아간다면 1.5°C경로에 맞춘 비즈니스는 영위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보험사는 필요한 전환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은 보험사는 단기 수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허울뿐인 탄소중립 서약을 발표할 뿐이다.

전망

보험사는 신규 석탄,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 인수를 중단하고 진행 중인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는 보험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부분의 기업은 제한적인 조치만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NZIA를 통한 자발적인 집단 기후 행동이 불가한 상황에서 보험 규제 당국은 화석연료 전환 정책을 통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보험 업계가 신뢰할 수 있는 1.5°C경로에 맞춰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한다는 압박은 증가할 것이다. 새로운 EU 지침에 따라 유럽 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대기업은 2024년 1월부터 지속 가능성 노력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지난 7월 EU 의회 위원회가 승인한 Solvency II rules 초안에 따라 보험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한 정량화 가능한 목표와 프로세스가 포함된 전환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the Senate Budget Committee는 지난 6월 AIG, 처브Chubb, 리버티 뮤추얼Liberty Mutual, 트래블러스Travelers,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스타Starr 및 기타 보험사에 화석연료에 대한 보상 및 투자 내역과 각 보험사가 인권을 얼마나 존중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보험감독당국협회(IA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는 2023년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도쿄에서 연례 회의를 개최하여 과학 기반 전환 계획에 대한 의무 요건을 포함하여 보험 인수와 기후 과학의 연계성을 규제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

42%

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로 직업 변경 의향이 있는 밀레니엄 세대 비율

보험사들이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압력은 예상치 못한 곳, 직원들로부터 커지고 있기도 하다. 보험 업계는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최근 300명 이상의 시니어 손해보험사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인재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25] 딜로이트의 글로벌 설문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의 42%가 기후 문제로 인해 이미 직업이나 업종을 변경했거나 변경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26] 지난 5월, 영국의 학생과 졸업생 500여 명이 로이드 및 기타 화석연료 보험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서한에 서명했다. 기후 비상사태가 심화됨에 따라 화석연료 정책은 보험사가 우수 인재를 채용할 기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석탄 부문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보험은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규제 당국뿐만 아니라 직원과 잠재적 직원, 이사회 구성원과 잠재적 이사회 구성원, NGO와 활동가, 고객과 주주, ESG 평가 기관과 애널리스트 등 기후 행동 강화에 관심이 있는 모든 주체가 화석연료 보험사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 하다. IOF 캠페인은 이러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보험 업계가 책임을 받아들이고 기후 재난을 막기 위한 역할을 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보험사 화석연료 정책

“From our point of view, pressure to cease underwriting [fossil fuels] is very effective. Insurance is an incredible tool for enacting change.”

“보험사 관점에선 [화석연료] 인수 중단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보험은 변화를 만드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Dominick Hoare, Munich Re, November 2022

(도미니크 호어, 뮌헨 리리, 2022년 11월)

아래 사항은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는 파리 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화석연료 정책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스코어카드 보고서의 보험사 정책 평가 지표이다.

언더라이팅(보험 인수) 정책Underwriting Policies:

- **범위**
  해당 정책은 모든 유형의 신규 석탄 인프라(광산 및 발전소, 운송 시설 포함), 타르 샌드와 같은 극지 화석연료, 관련 파이프라인, 북극 및 초심해 시추, 생산량 증가에 기여하는 모든 석유 및 가스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을 배제해야 한다.
- **보장 유형**
  해당 정책은 근로자 보호, 링펜스ring-fenced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기존 광산 개량 보증 채권을 제외한 신규 및 기존 프로젝트와 기업의 모든 사업 부문에 적용되어야 하다. 재보험사의 경우 특약 재보험Treaty Reinsurance및 임의 재보험Facultative Reinsurance에도 적용되어야 한다.[9]
- **화석연료 회사**
  해당 정책은 석탄, 석유 및 가스 사업 영위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가져야하며,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하기 위해 적용 범위를 점점 강화해야한다. 정책은 1.5°C 경로에 부합하지 않는 화석연료 산업의 신규 고객을 즉시 배제하고, 이러한 경로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화석연료 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모든 보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 **배출량 감축 목표**
  보험사는 신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상업용 손해보험 포트폴리오에 대한 단기 및 장기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목표는 에너지 및 전력을 포함한 모든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의 Scope 3 배출량을 포함해야 하며, IPCC의 연구 결과에 따라 2030년까지 보험에 가입한 배출량을 최소 43%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인권**
  정책에는 영향을 받는 원주민의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정보에 입각한 동의(FPIC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of impacted Indigenous Peoples)를 얻고 문서화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하여 기업이 모든 인권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자회수 정책Divestment Policies

- **범위**
  해당 정책은 1.5°C 경로에 부합하지 않는 석탄, 석유 및 가스 회사, 파이프라인 및 기타 운송 인프라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 **자산 유형**
  해당 정책은 주식및 채권, 액티브 및 패시브 운용 펀드, 보험사의 고유 자산, 제3자를 위탁 자산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화석연료 회사**
  언더라이팅 정책과 상동하다.

언더라이팅 진행 상황

올해 더 많은 보험사가 화석연료 제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강화했지만, 기후 위기가 심화되는 현재의 상황에 충족한 수준은 아니었다. 비상과도 같은 기후 위기에 대한 보험업계의 미흡한 대응을 반영하듯, 올해 스코어카드에서 상위 3개 자리는 비워져 있다.

알리안츠Allianz는 지난 2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화석연료 인수 정책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올해 독일 보험사 제너럴리Generali Re, 아비바Aviva, 스위스 리Swiss Re, 하노버 리Hannover Re, 악사AXA, 악시스 케피탈AXIS Capital이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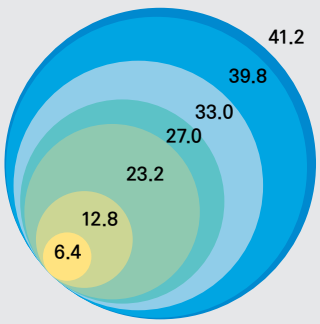
석탄 :

지난 12개월 동안 탈석탄 정책의 수는 41개에서 45개로 증가했다. 스코어카드의 상위 30개 화석연료 보험사 중 24개 보험사가 석탄 제한 정책을 수립했다(로이즈 오브 런던Lloyd's of London은 석탄 제한 정책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선언함.). 알리안츠, AXA, 스위스 리, 제너럴리는 석탄 제한 정책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에버레스트 리Everest Re, 로이즈Lloyd's, 스타Starr, W.R. 버클리W.R. Berkley은 석탄 제한 정책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W.R. 버클리가 마지막 석탄 보험사로 남을 듯하다. 중국 보험사들도 석탄 제한 조치를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자국 밖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인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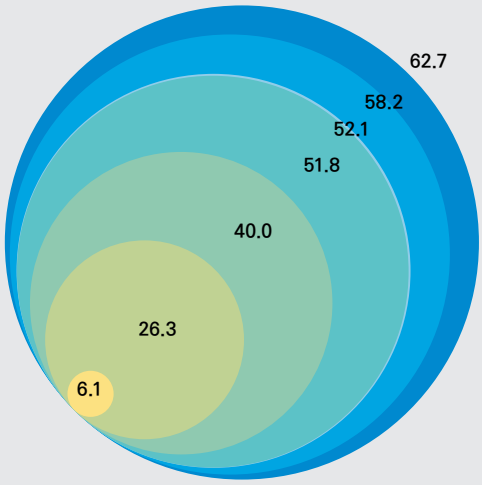
대부분의 석탄 제한에는 신규 석탄 광산과 석탄 발전소에 더 이상 보험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의 보험사 중 알리안츠, AXA, 악시스 캐피탈, 제너럴리, 취리히Zurich, 그리고 일부 자격 요건을 갖춘 마프레Mapfre 등 6개 보험사는 신규 석탄 프로젝트 개발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한 보험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상위 30개 화석연료 보험사 중 8개 보험사(알리안츠, AXA, 악시스 캐피탈, 제너럴리, 마프레, 스코르, 스위스 리, 취리히)는 OECD 및 기타 유럽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그 외 국가에서는 2040년까지 완전히 석탄 프로젝트를 폐지하기로 약속했다. 하노버 리, 뮌헨 리, 스코르 및 스위스 리도 특약 재보험Treaty Reinsurance에 대해 유사한 약속을 했다.

그림 4: 석탄 제한 정책을 수립한 보험사 비율(석탄, 2017–2023)



석탄 제한 정책 수립 보험사 시장 점유율
보험사 (%)



석탄 제한 정책 수립 보험사 시장 점유율
재보험사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출처: IOF (2017 – 2019), 인슈라모어Insuramore(2020 – 2023)

석유 및 가스 :

석유 및 가스 제한 정책의수는 올해 14건에서 18건으로, 스코어카드에 포함된 보험사 중에서는 10건에서 12건으로 증가했다. 타르 샌드와 북극 석유에 대한 보상 제한을 포함하면 상위 30개 화석연료 보험사 중 18개를 포함하여 21개에서 26개로 늘어난다.

아비바, 제너럴리, 알리안츠, 하노버 리는 석유 및 가스 관련 정책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일부 정책의 경우 그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알리안츠, 악사, 아비바, 제너럴리, 하노버 재보험, HDI-탈란스, 마프레, 뮌헨 리, 스코르 , 스위스 리 등 10개 보험사만이 더 이상 새로운 전통적 석유 및 가스 채굴 프로젝트를 인수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 그룹 중 악사, 스코르 및 스위스 리는 신뢰할 수 있는 전환 계획을 가진 회사에 대해 예외를 적용한다. 신규 채굴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는 전환 계획은 기후 과학에 어긋나므로 해당 사항은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알리안츠, 뮌헨 리, HDI-탈란스HDI-Talanx는 더 이상 새로운 미드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석유 인프라를 인수하지 않는다고 했다 (단, 미드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가스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하노버 리는 더 이상 석유 및 가스 채굴 확대와 관련된 새로운 미드스트림 인프라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3.8

보험사의 석탄 정책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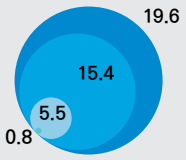
1.4

보험사의 석유 및 가스 정책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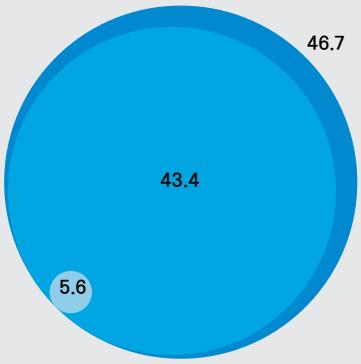
하노버 리는 특약 재보험에 대해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기업 제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유일한 재보험사이다. 스위스 리는 2023년 말말까지 관련하여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평균적으로 보험사의 석유 및 가스 제한 정책의 품질은 석탄 폐지 정책보다 제한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 알리안츠는 석탄 폐지 정책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반면, 가장 강력한 석유 및 가스 규제를 시행하는 보험사인 제너럴리와 아비바는 10점 만점에 4점을 받는 데 그쳤다. 스코어카드 포함된 30개 기업의 평균 석탄 정책 점수는 10점 만점에 3.8점, 석유 및 가스 정책 점수는 10점 만점에 1.4점에 불과했다.

그림 5 석탄 제한 정책을 수립한 보험사 비율(석유 및 가스, 2017-2023)



석유 및 가스 제한 시장 점유율
보험사 (%)



석유 및 가스 제한 시장 점유율
재보험사 (%)

투자회수 진행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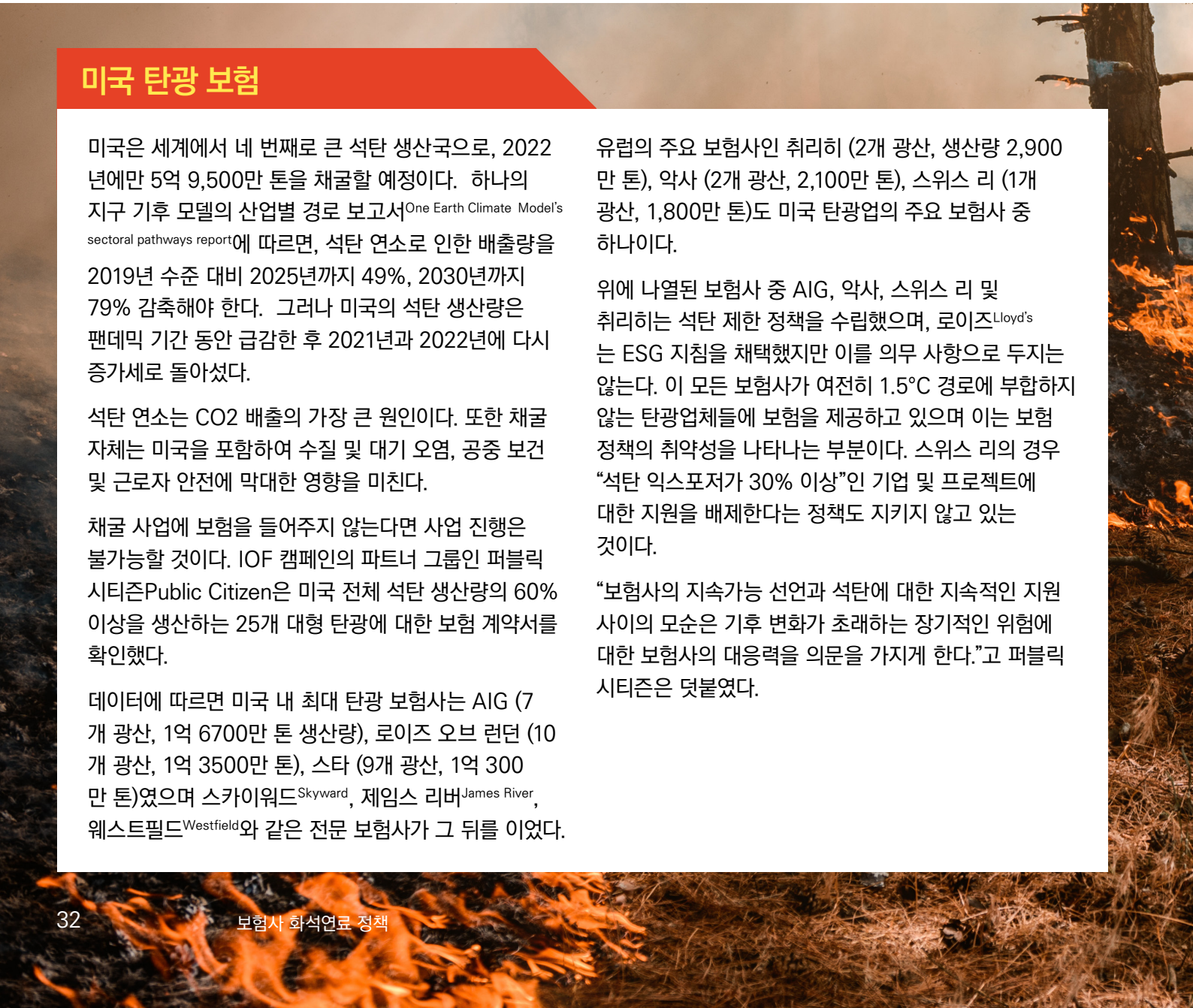
이 보고서에서 평가한 30개 보험사 중 25개 보험사가 탈석탄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23개 보험사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작년 19개에서 20개로 늘어난 보험사가 일부 석유 및 가스 자산에서 투자 철회를 결정했다.

10점 만점에 10점을 획득한 스코르는 화석연료 투자 정책 평가에서 다시 한번 큰 점수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제너럴리, 스위스 리, 취리히, QBE, 악사가 있다.

악사, 악시스 캐피탈, 제너럴리, 스코르, 취리히 및 스위스 리는 모두 석탄 투자 정책에서 10점 만점에 만점을 받았다. 그들은 새로운 석탄 광산과 석탄 발전소를 개발하는 회사, 그리고 일반적으로 1.5°C 경로에 부합하지 않는 석탄 회사들에 대한 투자를 중단했다.

스코르는 석유 및 가스 투자 정책에서 제너럴리, QBE, 스위스 리, 아비바를 제치고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전통적 석유 및 가스 회사에서만 투자를 철회한 반면, 업스트림 석유 및 가스 확장 계획이 있는 회사에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 보험사는 스코르가 유일하다.

버크셔 해서웨이, 에버레스트 리, PICC,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Sinosure, 스타는 석탄, 석유, 가스 기업 투자 철회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미국 탄광 보험

미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석탄 생산국으로, 2022년에만 5억 9,500만 톤을 채굴할 예정이다. 하나의 지구 기후 모델의 산업별 경로 보고서One Earth Climate Model's sectoral pathways report에 따르면, 석탄 연소로 인한 배출량을 2019년 수준 대비 2025년까지 49%, 2030년까지 79%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석탄 생산량은 팬데믹 기간 동안 급감한 후 2021년과 2022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석탄 연소는 CO2 배출의 가장 큰 원인이다. 또한 채굴 자체는 미국을 포함하여 수질 및 대기 오염, 공중 보건 및 근로자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채굴 사업에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사업 진행은 불가능할 것이다. IOF 캠페인의 파트너 그룹인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은 미국 전체 석탄 생산량의 60% 이상을 생산하는 25개 대형 탄광에 대한 보험 계약서를 확인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내 최대 탄광 보험사는 AIG (7개 광산, 1억 6700만 톤 생산량), 로이즈 오브 런던 (10개 광산, 1억 3500만 톤), 스타 (9개 광산, 1억 300만 톤)였으며 스카이워드Skyward, 제임스 리버James River, 웨스트필드Westfield와 같은 전문 보험사가 그 뒤를 이었다.

유럽의 주요 보험사인 취리히 (2개 광산, 생산량 2,900만 톤), 악사 (2개 광산, 2,100만 톤), 스위스 리 (1개 광산, 1,800만 톤)도 미국 탄광업의 주요 보험사 중 하나이다.

위에 나열된 보험사 중 AIG, 악사, 스위스 리 및 취리히는 석탄 제한 정책을 수립했으며, 로이즈Lloyd's는 ESG 지침을 채택했지만 이를 의무 사항으로 두지는 않는다. 이 모든 보험사가 여전히 1.5°C 경로에 부합하지 않는 탄광업체들에 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 정책의 취약성을 나타나는 부분이다. 스위스 리의 경우 "석탄 익스포저가 30% 이상"인 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다는 정책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의 지속가능 선언과 석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사이의 모순은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장기적인 위험에 대한 보험사의 대응력을 의문을 가지게 한다."고 퍼블릭 시티즌은 덧붙였다.

화석연료 사업 보험으로 인한 기후위기를 책임지지 않는 보험사들

2017년 이후 홍수, 허리케인, 산불,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연간 보험 손해액은 평균 1,100억 달러가 넘었으며, 이는 이전 5년 평균 520억 달러의 두 배 이상이다. 기후 재해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 업계는 기후 리스크에 대한 보험 인수는 철회하고 있지만, 화석연료 사업 확장에 대한 보험 인수는 철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재해 리스크에 대한 노출은 재보험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2년 이후로 AIG 재보험AIG Re, 악시스 캐피탈AXIS Capital, 악사XLAXA XL, 에베레스트 리Everest Re, 스코르SCOR 및 트랜스리TransRe 같은 주요 재보험사들은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보장 범위를 줄이거나 아예 부동산 보험 시장을 떠났다. 스위스 리 연구기관에 따르면 2022년에 전 세계적으로 재보험에 할당된 자본이 20~25% 감소하여 재보험 보험료가 더욱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 스테이트팜State Farm, 올스테이트Allstate, 처브Chubb, 도쿄해상Tokio Marine, AIG, 에이엠가드AmGUARD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의 일부) 및 기타 보험사들은 수년간 기후 재해가 심화되자 캘리포니아 주택 보험 시장에서 철수했다. 파머스Farmers는 보험 제공에 제한을 뒀고 리버티 뮤추얼Liberty Mutual은 주 보험 사업에서 철수했다. 이 보험사들을 합치면 2022년 주 주택 보험 시장의 5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주택 보험 시장은 기후 변화가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사회 구조를 어떻게 위협하는지를 보여주는 조기 경고 신호이다. 퍼스트 스트리트 재단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루이지애나에 있는 부동산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즉시 각각 최대 39%, 40%, 48%의 가치를 잃게 된다. 재단은 홍수, 바람, 산불 위험에 노출되어 이러한 가격 쇼크로 인해 미국 내 3,900만 채의 부동산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충격적인 아이러니는 보험사가 기후 리스크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방치하는 동안 화석연료의 확장을 인수하고 투자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걸프 해안(The U.S. Gulf Coast)은 이러한 위선의 극명한 예를 보여준다. 이 지역에 20개 이상의 액화 천연 가스(LNG) 시설을 건설하려는 제안이 있는데, 대부분 화석연료 산업으로 인해 이미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 빈곤층, 소수 인종, 원주민 지역사회에 건설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수십 년 동안 메탄가스 추출이 증가하여 지역사회에 추가적인 건강, 안전 및 환경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안전 및 공중 보건 기록이 매우 열악한 프로젝트인 텍사스 프리포트 LNG 터미널의 보험 증명서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AIG, 알리안츠Allianz, AXA, 처브, 리버티 뮤추얼, 스코르, 로이드, 스타 등의 보험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시에 텍사스 걸프 연안에서 점점 더 많은 부동산 소유주들이 더 이상 민간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자금 지원이 열악한 주정부 보증 보험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보험사는 미국 캘리포니아를 위험에 빠뜨리는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 인수를 중단해야 한다. 걸프 연안과 호주 일부 지역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기후 영향을 받는 지역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재해로 인해 증가하는 손실을 모두 흡수할 수는 없지만, 그 책임을 기후의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나 주정부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문제를 일으킨 오염원에게 전가해야 한다.

1990년대에 건강 보험사들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실을 일부 회수한 것처럼, 보험사, 특히 재보험사들은 화석연료 회사들을 법정에 세워 그들이 초래한 기후 재앙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법정 소송은 기후 리스크에 노출된 지역사회에 보험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화석연료 회사들에게 시급히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 Insurance companies are in a powerful position to protect people and the planet. They need to truly protect communities impacted by the climate crisis, rather than supporting the fossil fuel industry and prioritizing profit. They need to be on the right side of history.”

“보험사는 인류와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하고 이익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기후 위기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진정으로 보호해야 한다. 그들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

Hilda Flavia Nakabuye, Fridays For Future Uganda

(힐다 플라비아 나카부예, 우간다의 미래를 위한 금요일)

IOF 캠페인Insure Our Future Campaign

IOF는 기후 위기에 기여하는 보험업계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묻는 NGO 및 사회 운동의 국제 캠페인이다. 이 보고서는 보험사들이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는 경로에 따라 신규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을 즉시 중단하고 기존 석탄, 석유 및 가스 사업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캠페인에 참여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International
Ekō; Greenpeace; Reclaim Finance; Sunrise Project; Waterkeeper Alliance.

Asia
Japan Center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Society (JACSES, Japan); Korea Sustainability Investing Forum (KoSIF, Korea); Solutions For Our Climate (Korea).

Europe
Campax (Switzerland); Coal Action Network (UK); Fundacja "Rozwój TAK - Odkrywki NIE" (Poland); Instituto Internacional de Derecho y Medio Ambiente (IIDMA, Spain), Mothers Rise Up (UK); Re:Common (Italy); Re-set (Czech Republic); Urgewald (Germany).

North America
Connecticut Citizen Action Group (USA); Investors For Paris Compliance (Canada); Mazaska Talks; Public Citizen (USA); Rainforest Action Network (USA); Sierra Club (USA).

이 캠페인은 대중의 참여 및 인게이지먼트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구한다:

-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사의 지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사례 연구 및 브리핑 보고서를 발행.
- 저탄소 사회에 맞지 않는 주요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보험사가 관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일선 커뮤니티를 지원. (예; 호주에 위치한 Adani 그룹의 카마이클 탄광, 알래스카 북극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 우간다/탄자니아의 동아프리카 원유 파이프라인 등)
- 서한, 컨퍼런스 발표, 라운드 테이블 등을 통해 보험 업계와 분석 및 요구 사항을 공유. 많은 그룹이 보험사와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고 주주총회에서 요구 사항을 제기하고 있음.
- 시위 및 기타 형태의 직접 행동으로 기후 행동에 뒤처진 개별 보험사에 압력.
- 직원, 미래 직원, 고객, 주주, 규제 당국을 동원하여 보험사가 신뢰할 수 있는 1.5°C 경로를 따르도록 압력.
- 언론, 업계 저널 및 소셜 미디어의 기사와 댓글을 통해 기후 위기에서 보험 업계의 역할에 대한 대중의 관심 촉구.

End notes

1 Climate Central, Carbon pollution boosted heat for billions during Earth's hottest summer, September 7, 2023

2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press conference – on Climate, June 15, 2023

3 Energy Institute,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23

4 See Reuters, Coal miners forced to save for a rainy day by insurance snub, August 31, 2023QW

5 Bloomberg, Zurich Insurance CEO Criticizes Climate Clubs After Exodus, August 10, 2023

6 See box, p16: Lloyd's of London: climate wreckers of last resort

7 See Criteria for Strong Fossil Fuel Policies section on page 29

8 AIG, Berkshire Hathaway, Everest Re, Liberty Mutual, Lloyd's, PICC, Ping An, Samsung FMI, Sinosure, Starr and W.R. Berkley did not respond to the Insure Our Future questionnaire.

9 Annex: Background notes on this platform

New or expanded coal, oil, and gas projects are defined as new coal, oil and gas extraction projects, power plants, transport facilities and other infrastructure (such as LNG terminals) that drive expanded extraction. This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ll oil and gas projects which had not yet received a Final Investment Decision (FID) by the end of 2021.

In accordance with the Global Coal Exit List, coal companies are defined as those that generate at least 20% of their revenue from mining and transporting coal or at least 20% of their electricity from burning coal; or produce at least 10 million tonnes of coal per year, or operate at least 5GW of coal-fired power stations; or are planning new coal mining, power or infrastructure projects.

Oil and gas companies are defined as oil and gas producers, oil service and equipment companies, companies involved in transporting oil, oil traders, companies refining and processing oil, or companies involved in the production and transport of LNG and power utilities which depend on oil and gas for more than 20% of their revenue. The Global Oil and Gas Exit List offers a list of companies in the upstream and midstream sectors.

Credible 1.5°C pathways must provide a greater than 50% chance of limiting global warming to 1.5°C, must not rely on offsets and must only rely on negative emissions to a minimal degree, as reflected in the One Earth Climate Model (OECM). According to the OECM's sectoral pathways report, which was commissioned by the Net-Zero Asset Owners Alliance, a credible 1.5°C pathway requires that Scope 3 emissions from fossil fuel production must be reduced as follows, compared with 2019:

Coal: -49% by 2025, -79% by 2030, -100% by 2050

Oil: -8% by 2025, -31% by 2030, -100% by 2050

Gas: -7% by 2025, -18% by 2030, -94% by 2050

Any company that is building new coal, oil or gas expansion projects is not aligned with 1.5°C. All coal-related assets need to be closed by 2030 in European and OECD countries and by 2040 in the rest of the world. Insurance services to be phased out include reinsurance for the captive insurers of the respective fossil fuel companies.

Workers' compensation policies, which directly benefit workers in the coal, oil and gas industry, renewable energy projects and operations which are ring-fenced from other energy and power sector projects and operations, and existing mine reclamation surety bonds should be exempt from this policy.

Insurers need to set emissions reduction targets for new projects as well as ongoing operations and need to define short- and medium-term targets (starting in 2025) across the entire commercial property & casualty portfolio. The targets must cover all greenhouse gases and the Scope 3 emissions of all carbon intensive sectors, including coal, oil, gas and electric utilities. They must aim for a reduction of insured emissions of at least 43% by 2030 (compared with 2019, as required according to the IPCC).

The FPIC policy should result in the ending of any insurance services for customers which fail to provide evidence that FPIC has been obtained for all projects on Indigenous lands and territories covered by the insurance policy.

10 Muenchener Rueckversicherungs-Gesellschaft, Hochwasser Ueberschwemmung, August 1973, p. 7

11 H. R. Kaufmann, "Storm damage insurance – Quo Vadis?" Swiss Re, November 1990.

12 Institute and Faculty of Actuaries and University of Exeter, The Emperor's New Climate Scenarios, Limitations and assumptions of commonly used climate-change scenarios in financial services, July 2023

13 IPCC, Global Warming of 1.5°C, Special Report, October 2018

14 UN, Rights-Based Approach, Renewable Energy Revolution Key for Safer, More Sustainable World, Secretary-General Tells General Assembly, Outlining 2023 Priorities, February 6, 2023

15 Institute and Faculty of Actuaries & Climate Crisis Advisory Group, Climate Emergency - tipping the odds in our favour, November 2022

16 Energy Institute,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23

17 Fatih Birol, Peak fossil fuel demand will happen this decade, Financial Times, September 12, 2023

18 Global Energy Monitor, Global Coal Plant Tracker (July 2023), Global Gas Infrastructure Tracker (July and December 2022) and Global Oil Infrastructure Tracker (May 2023)

19 New York Times, Large Insurers Are Hatching a Plan to Take Down Coal, November 23, 2021

20 Insuramore, Fossil Fuel Insurance Analysis for the Insure Our Future Campaign, unpublished research, June 2023.

21 Willis Towers Watson, Energy Market Review 2023, April 2023. p. 65

22 Willis Towers Watson, Energy Market Review 2023, April 2023, p. 33.

23 See footnote 29.

24 Extreme oil and gas include tar sands, associated pipelines, Arctic and ultra-deep water drilling.

25 Intelligent Insurer, Big Underwriting Survey 2023

26 Deloitte, 2023 Gen Z and Millennial Survey

27 Well-capitalized companies from the oil and other sectors can self-insure their businesses through so-called "captive insurers" which they own.

28 A contract with Mexico's Pemex, which is only renewed every two years, accounts for a large part of Mapfre's fossil fuel premium revenue. For the purpose of this list we have averaged Mapfre's fossil fuel premkums over the years.

29 Facultative insurance covers a specific risk or defined package of risks; treaty insurance covers all risk of a certain type.

30 All data in this box from Greenpeace Nordic, Ensuring disaster, May 2023

31 Nature, Unextractable fossil fuels in a 1.5 °C world, September 8, 2021

32 See Peter Bosshard, New insured emissions protocols are a fig leaf for continued fossil fuel expansion, in: Environmental Finance, November 16, 2022

33 Financial Times, European insurers say US backlash has damaged climate change push, August 12, 2023

34 Bloomberg News, Zurich Insurance CEO Criticizes Climate Clubs After Exodus, August 10, 2023

35 Swiss Re Sigma, A perfect storm, Natural catastrophes and inflation in 2022, March 22, 2023

36 Swiss Re Institute, In 5 charts: continued high losses from natural catastrophes in 2022, March 29, 2023

37 First Street Foundation, The insurance bubble, 2023

38 See E&E News EnergyWire, A new energy battleground: Insurance for LNG terminals, June 5, 2023

39 E&E News ClimateWire, Growing insurance crisis spreads to Texas, April 17, 2023

40 See Peter Bosshard, Chiara Arena, Who pays for a hurricane? Context, October 14, 2022

41 A short ton is a measurement unit equal to 2,000 pounds (907.18 kg), commonly used in the U.S.

42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Institute for Sustainable Futures, Limit global warming to 1.5 °C, Sectoral pathways & Key Performance Indicators, May 2022

43 Public Citizen, Covering Coal: The Top Insurers of U.S. Coal Mining, September 2023

44 Insure Our Future and Solutions for Our Climate, Exposed: The Coal Insurers of Last Resort, June 2022

45 See Coal Action Network, Lloyd's of London Insurer Probitas Exits Controversial Adani Coal Mine, July 2023

46 Reclaim Finance,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The fossil fuel policies of Lloyd's managing agents, April 2023

47 Facultative insurance covers a specific risk or defined package of risks; treaty insurance covers all risk of a certain type.

기후 실패의 50년
2023년 스코어카드: 보험, 화석연료 및 기후 위기 비상

1973년 8월, 보험 업계는 기후 위험 증가에 대해 처음으로 경고했다. 50년이 지난 지금, 업계는 기후 행동을 가속화하고 관리할 수 없는 기후 재난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 45개의 대형 보험사가 탈석탄 정책을 채택했으며 18개 보험사는 기존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 보장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많은 주요 보험사들은 여전히 석유 및 가스 산업의 확장 사업에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 보고서는 화석연료 보험의 최근 동향을 요약하고, 30개 주요 보험사 및 CEO의 기후 정책을 평가하며, 업계의 선두주자와 후발주자를 식별한다.

insure-our-future.com/scorecard

Translated by KOSIF Korea Sustainability Investing Forum